

5

보일러공에게 발생한 폐암

성별	남	나이	69세	직종	보일러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주○○(남, 69)는 1960년대부터 사업체 보일러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○○경찰서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던 중 2002.12. 폐암(소세포암)이 발견되었고 치료 중 사망하였다.

2 작업환경

주○○는 경찰서 지하 보일러실은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아니어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. 이 보일러실에서는 1996년까지는 보일러에 석면 보온재를 사용하였으나 비석면으로 교체하였고 일부 패킹 등에 석면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확인되지 않았다.

3 의학적 소견

2002.12. 감기 증상과 옆구리 통증이 나타났고 폐암(소세포암)으로 진단받고 치료 중 2003.6. 사망하였다. 2002.8. 일반건강진단에서는 고혈압이 있었으나 흉부방사선 간접촬영은 정상으로 나타났다. 주○○는 1977.11.~1991.1. 시중은행의 보일러실에 근무하였고 그 이전에는 ○○목재 보일러실에 10년 간 근무하였다. 10년 전에 금연을 하였고 그때까지의 흡연력은 40갑·년이었고 음주는 하지 않았다.

4 업무관련성에 대한 의견

과거에는 보일러에 석면단열재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대부분 비석면으로 교체되었다. 보일러의 교체 주기는 5~10년인데 석탄보일러는 교체주기가 짧고 가스보일러는 교체주기가 길다. 보일러 교체는 전문업체에서 하나 보일러실에 장기간 근무하는 근로자도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. 이 근로자는 흡연량이 많아 흡연에 의해 폐암이 발생되었을 가능성도 높지만, 30여년 간 석면에 노출되었고 석면 노출과 흡연은 폐암발생에 상승작용을 일으키므로 보일러실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석면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. 그러나, 근무력, 석면 사용력 등을 볼 때 현재의 사업장에서 노출된 석면보다는 30년 이상 보일러공으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.

5 결 론

주○○의 폐암(소세포암)은

- ① 30년 이상 보일러 공으로 근무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,
- ② 비록 40갑년의 흡연력이 있으나 10년 전에 금연하였고,
- ③ 석면 노출과 흡연은 폐암 발생에 상승작용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작업 중 노출된 석면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.